【논문】

심리적 내재론과 미적 지각

신 현 주

【주제분류】 심리 철학, 미학
【주요어】 심리적 내재론, 심리적 외재론, 데카르트적 회의론, 시각 이론, 미적 지각

【요약문】 내재론자들은 종종 심리적 내재론을 옹호하기 위해 그것의 직관적 자연스러움을 언급한다. 특히 내재론적 지각 이론은 가장 선철학적이라고 평가받는 '지각 관련 직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곤 하는데, 이를 들어서 내재론자들은 심적 상태의 유형 중 일부는 외재론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각과 관련해서는 내재론이 직관에 의해 지지된다고 주장하는 노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버지는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직관은 외재론적 지각 이론과도 얼마든지 양립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직관 그 자체가 내재론을 지지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그렇다면 버지의 주장대로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자랑하던 직관적 호소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지각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외재론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필자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재론 대 외재론 논쟁에서 간과되어온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은 지금까지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빈번히 미적 지각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유형에 대한 논의는 지각에 대한 논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미적 지각은 지각에 대한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을 보다 복합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재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각 관련 직관은 '지각 일반'의 문제에 있어서 외재론과도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도, '미적 지각'의 문제에 있어 그 직관은 오직 내재론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적 지각은 내재론이 자랑하던 직관적 호소력은 근거가 없다는 버지의 논증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반례가 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심적 상태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개별화(individuate)하는 문제에 있어 철학자들은 심리적 외재론과 내재론이라는 대립적인 두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외재론은 심적 상태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그 상태의 소유자가 위치한 환경의 특징을 지시함으로써 개별화된다고 본다. 반면 내재론은 한 심적 상태의 내용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 속한 본래적 혹은 내부적 속성들에 수반하며,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여기서 즉각적으로 심리적 내재론이 심성 내용(mental content)에 관한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한 개인의 믿음, 두려움 등의 내용이 그가 위치한 환경적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감각을 통해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으며 그 결과 나의 심적 상태는 세계의 어떤 모습을 표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심적 상태의 내용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심리적 내재론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며, 그러므로 혹자는 내재론과 외재론의 대립 자체가 가짜이거나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재론을 오해했기에 생기는 견해이다.

우리는 이 두 견해의 대립이 '외부 환경이 우리의 믿음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내재론이나 외재론 모두 이 세계의 다양한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과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어떤 생물이 물을 내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이 고래임을 알게 된 후 나는 '고래는 물을 내뿜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내재론과 외재론 모두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논쟁점은 내가 "고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래라는 개체가 어류인지 포유류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심지어 그런 생물학적 분류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래를 포유류로 분류하는 이 세계의 한 사실'이 내 믿음의 내용을 개별화하는 요소인가이다. 이에 대해 외재론은 그렇다고 보며, 내재론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 대립점을

인식한다면 이제 이 두 견해의 논쟁은 흥미롭게 느껴지며, 이 때문에 이 논쟁은 최근 몇 십년간 심리철학에서 매우 활발했다.

1970-80년대 퍼트남과 버지 등에 의해 전개된 심리적 외재론은 그 등장과 더불어 심성에 관한 이전의 주요 이론들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1] 그것은 바로 전통적 심성 이론들이 대부분 심리적 내재론이라 불리는 특정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 물론 전통적 이론들이 의식적으로 심리적 내재론의 한 형태로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외재론자가 지적하는 것은 외재론의 등장으로 인해 그것과 대비되는 견해의 윤곽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떠올랐고, 흥미롭게도 바로 그 특정 견해가 전통적 심성 이론들 내에서 전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심리적 내재론은 외재론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이론적 윤곽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새로운 연구기획들이 촉발되었는데, 예를 들어 지식이나 언어의 본성 등 철학의 중심 주제와 관련된 전통적 주류 이론들 역시 심리적 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이론들이 구조적으로 지니는 한계 역시 심리적 내재론 때문임을 보이는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이용해 외재론자들은 내재론을 공격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심적 상태 중 외재론에 적절히 부합하는 유형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내재론의 입지를 좁히려 한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내재론은 심적 상태의 유형 중 일부는 외부 환경의 지시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소위 '넓은 내용'이라 불리는 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유형들은 온전히 개인의 본래적 혹은 내부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소위 '좁은 내용'이라 불리는 내용)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외재론의 공격에 맞선다. 혹은 하나의 심적 상태가 넓은 내용과 좁은 내용을 모두 가진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

---

1) Burge, T. (1979), "Individualism and the Mental",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IV,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73-121.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Philosophical Papers II: Mind, Languages,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예를 들어 데카르트적 이원론, 버클리나 라이프니츠의 관념론, 물리적 환원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학적인 설명은 오직 좁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외재론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재론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 주로 '지각 경험'을 예로 든다. 즉 그들은 좁은 내용으로 개별화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심적 상태로 지각 경험을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이라는 유형은 외재론과 내재론의 논쟁에 있어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영역 중 하나일 것이다.

내재론자들은 특별히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가지는 강한 직관적 호소력을 들면서, 지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만은 외재론보다 내재론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외재론자인 버지는 지각에 대한 내재론이 왜 그러한 호소력을 갖는지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지각에 대한 내재론이 직관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내재론이 정당하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버지는 성공적인 심리학 이론으로 평가받는 마르의 시각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이론은 내재론이 전제로 사용하는 직관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지각의 내용을 외재론적으로 개별화한다. 마르의 시각 이론은 그러므로 지각과 관련하여 내재론이 전제로 삼는 직관은 외재론에도 얼마든지 호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직관 그 자체가 내재론적 지각 이론을 정당화하는 힘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버지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가진다고 자랑하던 직관적 호소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지각 내용을 더 적절히 설명하는 이론은 외재론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본고에서 필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의 심적 상태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첫째,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은 지금까지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히 미적 지각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유형에 대한 논의는 지각에 대한 논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미적 지각은 지각에 대한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을 보다 복합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재론자의 주장대로 '지각 일반'에 대한 내재론이 자랑했던 직관적 호소력이 허상이었다 할지라도, '미적 지각'에 대한 내재론은 여전히 외재론보다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듯하며, 그렇다면 미적 지각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면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은 단순히 외재론의 우세로 종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Ⅱ

내재론적 지각 이론뿐만 아니라 심리적 내재론은 일반적으로 외재론에 비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심리적 내재론의 직관적 호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심리적 내재론이 가진다고 간주되는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과연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 버지의 논의를 따라가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심리적 내재론이 자랑하던 직관적 자연스러움의 근거 없음이 드러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미적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의 경우 내재론적 설명이 외재론보다 직관에 더 잘 부합하며, 그러므로 직관적 자연스러움을 들어 내재론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미적 지각'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고의 후반에서 주장할 것이다. 이 절의 목적은 내재론이 내세우던 직관적 호소력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유들로 근거 없다고 밝혀졌는지 살펴봄으로써, 본고 후반에 등장할 필자의 주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우선 버지가 심리적 내재론에서 찾아낸 직관적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자. 그는 데카르트를 추종하는 내재론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나타난 네 직관 중 하나를 이용해 심리적 내재론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물론 버지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이용한 직관들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회의론은 어떤 직관을 사용하는가?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지식의 주춧돌이 되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과 지식을 의심해 보자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회의적 사고실험을 따

라가도록 요청한다. 버지에 따르면 이 사고실험은 외부 세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에 "인과적 틈(causal gap)"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인식에 크게 의존한다. 다시 말해 경험 세계의 요소 중 나의 믿음과 지각을 인과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의 믿음과 지각을 인과한 것과 상이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버지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심적 상태의 원인이 실제의 원인과 다를 수 있다는 직관이 데카르트의 회의론을 작동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후, 문제의 인과적 틈에 대한 직관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 네 가지 하부 직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3)]

소위 '인과적 틈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로 버지가 논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과적 성격의 직관이다: 서로 다른 원인이 개인의 몸에 동일한 물리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은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하는가? 버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 그는 문제의 첫 번째 직관은 그대로 심리적 외재론에도 호의적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사고실험을 생각해보자.[4)] 쌍둥이 지구는 지구와 모든 것이 동일해 구분이 가지 않는 행성인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액체는 그 화학구조가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알 수 없는 이 화학구조를 편의상 XYZ라고 하자. 이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것은 H2O가 아닌 XYZ이기 때문에 쌍둥이 지구에는 사실상 물이 없다. 단지 그곳에서 "물"이라 불리는 액체는 지독한 우연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물이 지구인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쌍둥이 지구에서의 "물"이 쌍둥이 지구인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점은 바로 문제의 첫 번째 직관과 정확히 일치한다. 퍼트남의 사고실험에서 사용되는 위의 가정, 즉 쌍둥이 지구의 "물"이 쌍둥이 지구인의 몸에, 그리고 지구의 물이 지구인의 몸에 동일한 인과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바로 데카르트

---

3) Burge, T. (1986a), "Cartesian Error and the Objectivity of Perception", in J. McDowell and P. Pettit (eds.), *Subject, Thought, and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20-121.

4) Putnam (1975), pp. 215-227.

의 회의론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직관, 즉 외부의 서로 다른 원인이 개인의 몸에 동일한 물리적 영향을 산출할 수 있다는 직관과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퍼트남의 사고실험이 심리적 외재론을 지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이 그들이 가지는 본래적, 내부적 속성을 모두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들 환경의 차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제의 첫 번째 직관이 심리적 외재론에도 호의적이라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그 직관을 전제 삼아 심리적 내재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정당화를 요구하는 추론이지, 그 정당성이 문제의 직관에 의해 제공되는 추론이 아니다.[5)]

데카르트의 회의론을 작동시키는 주된 직관(소위 '인과적 틈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을 구성하는 두 번째 하부 직관은 다음과 같은 인식론적 성격을 지닌다: 외부 세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외부 세계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버지는 내재론자들 중 일부는 바로 이 직관이 가지는 회의적 힘에 호소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과연 이 직관이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하는지 묻는다. '경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는 심각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직관으로부터 '그러므로 심적 상태의 내용은 환경적 요소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별화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우선 내재론자들이 왜 그 같은 추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그들은 경험 세계의 실제 모습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내용은 '불변'한다고 보았기에 그런 추론을 내리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세계의 실제 모습이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세계의 모습이 이렇거나 저렇다고 판명되는 것에 상관없이 어떤 '고정된' 내용을 가진다고 생각하기에, 내 믿음의 내용은 외부 세계의 요소와는 관계없이 개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지는 일단 이 추론에서 사용된 전제 그 자체는 문제가

5) Burge (1986a), p. 121.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나의 믿음은 외부 세계가 어떠한 모습이던지 간에 불변하는 내용을 가진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이미 심리적 내재론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도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는 조심스러운 인식자라면 가질 수 있는 무리 없는 전제이나, 그로부터 심리적 내재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은 상당히 심도 깊은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내재론자들은 결론을 이미 전제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6)

세 번째 직관으로 넘어가자. 버지가 데카르트의 회의론에서 찾은 세 번째 직관은 다음과 같은 인식론적 성격의 직관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 자신의 발생적(occurrent) 심적 상태에 직접적이며 권위적인 접근을 가진다. 사실 우리 자신의 발생적 심적 상태에 각자가 특권적 접근을 가진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만일 내가 지금 두통을 앓고 있다면 그러한 심적 사건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며, 분명 의사도 내가 두통을 앓는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는 결코 내가 나의 심적 상태에 서 있는 위치에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철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이 직관은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하는가? 내재론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반사실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구에 살고 있을 때 나는 분명 나의 발생적 믿음에 제삼자가 가질 수 없는 접근권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쌍둥이 지구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발생적 믿음에 제삼자가 가질 수 없는 접근권을 가진다. 내재론자들은 이 두 행성에서 모두 내가 내 발생적 믿음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내 믿음의 내용은 외부 요소에 대한 지시 없이 개별화된다고 결론 내린다.

물론 버지는 이러한 결론은 문제의 전제 그 자체로부터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버지에 따르면 내재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바로 '심성 내용은 어떻게 개별화되는가?'라는 문제에 '우리는 각자의 심적 상태에 특권적 접근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본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심성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가?'라는

6) Burge (1986a), pp. 121-123.

질문은 진지한 철학적 논쟁을 통해 답해져야 할 문제인데, 내재론자들은, 매우 거칠게 표현하자면, '내 심적 상태에는 나만이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내 심적 상태의 내용도 오직 나에게 속한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7] 나의 발생적 믿음, "양지머리 가격이 지난주보다 내렸다"라는 생각에 내가 특권적 접근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것들에 의해서 개별화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나는 솔직히 "양지머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며, 대충 고기의 한 부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내가 해석한 "양지머리"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나는 사실 "사태"에 대해서도 대충 고기의 한 부위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사태 가격이 지난주보다 내렸다"는 나의 믿음은 "양지머리 가격이 지난주보다 내렸다"는 믿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별화되는가? 이런 이상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믿음의 내용은 환경적 요소, 즉 내가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양지머리", "사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의해 확인되고 개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내재론자들은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즉 개인들 각자는 자신의 발생적 믿음에 권위적으로 접근한다) 그 자체가 엄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주장(즉 내 믿음의 내용은 환경적 요소와는 독립적으로 개별화된다)을 충분히 지지한다고 생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Ⅲ

위에서 필자는 우리의 직관들이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한다는 내재론자들의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지 못한지 살펴보았다. 이제 데카르트의 회의론에서 작동하는 네 번째 직관인 '지각 관련 직관'에 호소하여 내재론적 지각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버지는 데카르트가 사용한 '지각 관련 직관'은 앞의 세 직관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평

7) Burge (1986a), pp. 123-124.

가한다. 물론 서로 다른 직관들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문제 삼으면서 그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버지는 문제의 네 번째 직관이 가장 선철학적(pre-philosophical)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는 듯하다.

문제의 네 번째 직관은 다음과 같다: 지각자에게 현상적, 질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지각 경험들은 그것이 진실한(veridical) 지각이건 착시(illusion)이건, 혹은 환영(hallucination)이건 간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8] 우선 착시란 무엇인가? 착시는 지각되고 있는 대상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속성을 사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곧은 직선의 젓가락이 물에 잠기면 굽어보이는, 혹은 파란색의 물체가 빨간 조명 아래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경험 등이다. 반면 환영은 실제로는 물리적인 혹은 마음-독립적인(mind-independent)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그러한 대상을 지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LSD약물이 일으킨 환영으로 인해 내 방이 꽃으로 가득 찬 것처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때 마음-독립적인 꽃들이 실제로 내 방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의 네 번째 직관은 환영이나 착시가 지각자에게 있어 진실한 지각과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보라색 물체를 보는 착시 상태에 있는 지각자는 그것을 보라색 물체를 보는 진실한 지각과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직관은 지각자에게 구분되지 않는 진실한 지각, 환영, 착시들은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다고, 즉 '세상이 지각자에게 표상되는 바'가 동일하다고 말한다. 방금 예를 들었던 보라색 물체를 보는 착시와 진실한 지각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두 경우에서 모두 세상이 나에게 표상되고 있는 바가 동일한 것 같다. 즉 두 경우에서 모두 보라색 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이 표상되고 있다. 이렇게 지각자에게 구분불가능한 진실한 지각이나 착시, 혹은 환영은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진다는 생각이 데카르트가 사용한 네 번째 직관이다.

이 직관을 이용해 심리적 내재론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 관심사는 예상

8) Burge (1986a), p. 125.

가능하듯이 '지각'이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각에 관한 내재론은 다른 유형의 심적 상태들에 관한 내재론에 비해 가장 최근에 공격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지각에 관한 직관이 나머지 세 직관들보다 더 선철학적이라는 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각에 관한 내재론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자에게 경험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지각들은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지는데(네 번째 전제), 이로부터 우리는 지각 경험의 표상적 내용은 환경에 대한 지시 없이도 적절히 개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내재론적 지각 이론). 이러한 관점은 감각소여 이론(sense-data theory),[9] 부사적 이론(adverbial theory)[10] 등 전통적으로 주류로 간주되었던 지각 이론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내재론자는 데카르트의 네 번째 전제로부터 지각에 관한 내재론을 도출하는 추론을 전개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추론이 정당한지 살펴보자. 버지는 문제의 추론을 비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실제 심리학 이론 중 마르의 시각 이론을 살펴 본다: 성공적인 시각 이론이라 평가 받는 마르의 이론은 문제의 직관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시각의 표상적 내용을 외재론적으로 개별화하는데, 이 점은 네 번째 직관이 외재론과도 양립가능함을, 다시 말해 네 번째 직관 그 자체가 내재론적 지각 이론에만 호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준다.[11] 지금까지 버지는 심리적 내재론

---

9) Russell, B. (1912), *The Problem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rice, H. H. (1932), *Perception*, London: Methuen.

10) Chisholm, R. (1957), *Perceiving: A Philosophical Stud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1) 여기서 혹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심리적 내재론을 이상적인 방법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외재론에 바탕을 둔 마르의 시각 이론은 애초에 적절한 심리학이 아니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Dennet, 1971; Fodor, 1980; Stich, 1983 참조)
그러나 심리학이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어떠한 선험적 혹은 우세적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외재론적 심리학 이론들을 잘못되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마르의 심리학을 공격하는 이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학이라면 내재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격하는데, 이는 실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무시한 채 그들의 철학적, 수정주의적 기획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의 시각 이론이 달성하고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은 과학적인 외재론적 심리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재론에 큰 도전이 될 수 있

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재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버지는 가장 선철학적이라고 평가받는 지각 관련 직관마저도 내재론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심리적 내재론이 종종 자랑하던 직관적 호소력이 모두 근거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절을 통해 그러한 버지의 논의를 살펴본 후, 다음 절에서 지각 관련 직관을 오직 내재론에 호의적으로 만드는 지각 유형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내재론이 자랑하는 직관적 호소력은 근거 없다는 버지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마르의 시각 이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마르의 시각 이론은 인간의 초기 시각 형성에 관한 연구로, 근접 자극, 즉 망막에 가해진 빛의 자극을 통해 어떻게 외부 환경의 객관적인 가시 속성들(objective visible properties), 예를 들어 형태, 질감, 색깔, 공간적 관계 등이 신빙성 있게 표상되는지 그 과정을 일종의 계산(computational) 과정으로 설명한다.[12] 그의 시각 이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각각의 생물학적 종들의 시각 체계는 각자 그것의 환경이 강요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화되어왔다는 전제이다. 각 종들은 그것이 위치한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시각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서로 다른 종은 서로 다른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마르는 인간의 시각 체계를 이미 신빙성 있는 체계로 전제하고 있다. 즉 그는 외부 세계에는 객관적 가시 속성들이 있으며 인간의 시각 체계는 그것들을 진실하게 표상할 확률이 높은 신빙성 있는 체계로 진화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의 신빙성이 이미 가정된 상태에서 그의 이론은 그러한 신빙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망막 자극이라는 한정된 정보로부터 세상의 진실한(veridical) 속성

다. 키처(Kitcher, 1988) 또한 마르의 시각 이론이 가지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 첫째로 그의 시각 이론은 순수한 신경생리학적 설명이 왜 시각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드러내며, 둘째로 외재론적으로 심적 상태를 개별화할 경우 심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포더, 데닛, 스티치 등에게 결정적인 반례를 던져준다.

12) Marr, D. (1982), *Vision*, San Francisco: Freeman.

에 대한 정보가 표상되는지 그것을 정보처리 과정(information-processing)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마르의 이론은 인간의 시각을 환경이 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접 자극을 처리하여 세상을 신빙성 있게 표상하는 데 성공한 체계로 간주하고, 그러한 성공으로 이끄는 정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서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러한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한 부분일 것이나 기술적 세부사항은 지금 우리의 주제와 큰 관련이 없다. 우리의 논의에 긴밀히 관련된 부분은 바로 그의 두 전제들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제를 사용하는 시각 이론 내에서 시각의 내용은 근접 자극의 원인인 환경 요소를 직접 지시함으로써 개별화될 것이며, 이것은 명백히 시각의 내용을 외재론적으로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3]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전제들은 궁극적으로 시각과 환경의 객관적 속성 사이에 정기적, 정상적, 유사법칙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가정될 수 없다.[14] 인간의 시각과 그것을 인과한 환경의 객관적 속성 사이의 관계가 늘 가변적이고 무법칙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시각 체계에 대해 그것이 환경이 제시한 특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정기적, 정상적 관계가 있다고 상정해야만 비로소 그 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성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시각 경험이 지금과는 다른 객관적 속성들과 정기적, 정상적 인과관계를 맺는다면, 그 경우 우리의 시각 체계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와 환경이 맺은 정기적, 정상적 인과관계가 지금과 달랐더라면, 우리 시각 체계 내에서 발생한 시각 경험들은 지금과는 다른 표상적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

13) 내재론적으로 시각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외부의 객관적 가시 속성을 닮은 '감각 소여'나 '심상' 등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보며, 그러므로 그것을 기술함으로써 시각 경험의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언급되는 마르의 시각 이론은 감각 자료나 심상 등의 매개물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이론 내에서 한 시각 경험의 내용은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이나 속성에 대한 직접 지시 없이는 개별화되지 못한다.

14) Burge, T. (1986b), "Individualism and Psychology", *Philosophical Review* 95, pp. 6-45.

르의 이론 내에서 한 시각 경험의 내용은 그 경험과 정기적,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는 온전히 포착되지 못한다.

이제 마르의 이론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문제의 지각 관련 직관이 내재론적 지각 이론을 지지하는지 살펴보자. 그 직관은 진실된 지각, 환영, 혹은 착시 등이 지각자에게 구분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재론적 지각 이론 역시 이 직관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외재론자가 지적하는 내재론자의 잘못은 진실한 지각과 환영이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각 경험의 표상적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본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오아시스를 보는 진실한 지각과 환영을 생각해보자. 외재론 역시 내재론과 마찬가지로 오아시스를 보는 진실한 지각과 환영이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이유를 외재론자가 설명하는 방식이다. 버지와 마르식의 외재론 내에서, 그 둘이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다는 사실은 환영의 내용도 '진실한 지각'과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물리적 대상이나 속성에 대한 지시를 통해 개별화된다는 점을 들어 설명된다. 다시 말해 지각자가 현재 가지게 된 시각 체계와 정상적, 정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기술함으로써 '환영과 진실한 지각 둘 다'의 내용이 개별화되는 것이다.[15)]

외부 세계에 아무런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영의 내용이 진실한 지각의 내용과 동일할 수 있는 이유를 내재론자는 '마음의 극장' 안에 펼쳐진 인상이나 감각 소여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겠지만, 외재론자들은 '진실한 지각과 정상적, 정기적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물리적 대상 혹은 객관적 속성'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환영의 경우 외부에 아무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지각과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재론자는 '지각의 표상적 내용은 외부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와 관계없이 적절히 포착가능하다'고 결론내리는 반면, 외재론자는 '환영과 진실한 지각 모두 진실한 지각이 전제하고 있는 환경적

15) Burge (1986b), p. 37.

요소를 지시함으로써 그 표상적 내용이 포착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직관을 이용해 내재론과 외재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문제의 데카르트의 직관 그 자체가 내재론을 지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문제의 지각 관련 직관은 외재론과도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

Ⅳ

심리적 내재론은 종종 외재론에 비해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버지의 주장대로 심리적 내재론이 가지는 듯 여겨졌던 직관적 호소력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면, 이제 우리는 지각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외재론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이 절에서 필자는 그러한 결론은 매우 성급한 것이며, 지금까지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에서 간과되었던 심적 상태인 '미적 지각'에 대한 고찰 없이는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선 이 절에서 전개될 필자의 논증이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 중 어느 맥락에 위치하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최근의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은 극단적 외재론과 온건한 내재론 사이의 논쟁이라 볼 수 있다. 극단적 외재론은 모든 심적 상태가 넓은 내용만 가진다고 주장하며, 반면 극단적 내재론은 모든 심적 상태가 좁은 내용만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심적 상태의 경우 넓은 내용을 가진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내재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소수이며, 최근 내재론자들의 대부분은 심적 상태의 어떤 유형들은 넓은 내용을, 반면 어떤 유형들은 좁은 내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내재론을 옹호한다. 온건한 내재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좁은 내용을 가지는 심적 상태의 전형적 유형이 바로 지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각의 내용마저 넓다고 주장하는 현상적 외재론자들이 등장하여 온건한 내재론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 유형은 최근의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의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버지의 주장, 즉 내재론적

지각 이론에서 사용되는 직관은 얼마든지 외재론적 지각 이론과도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은 외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부터 필자는 이 논쟁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 논쟁은 물론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되었으나, 필자는 특별히 '직관의 성격'에 집중하는 버지의 방식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한 것이 내재론인가 외재론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여러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지만, 필자는 지금 데카르트의 지각 관련 직관만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 버지의 주장대로 외재론과 내재론 모두에 호의적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각에 대한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혹은 필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단지 한 이론의 '직관적 힘'에 대한 고려는 그 이론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때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은 자주 사고실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럴 때마다 양측은 우리의 직관에 호소하기 때문에 더욱더 '직관적 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직관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지각에 대한 내재론과 외재론 논쟁에 참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우리와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지각 관련 직관을 오직 내재론에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되게 만드는 지각의 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적 지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필자는 미적 지각에 대한 데카르트식의 직관은 우리를 오직 내재론적 설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직관으로부터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버지의 논증을 약화시키는 반례를 제공할 것이다.

1.

많은 이들이 시각, 청각, 촉각 경험과 같은 심적 상태들은 그것의 고유한 질적인 현상적 특성, 소위 "맨 느낌(raw feels)", "감각질(qualia)"이라 불리는 것을 가진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보는 시각 경험은 초록색을 보는 시각 경험이 가지지 않는 고유한 현상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 인

정된다. 일반적으로 한 경험의 현상적 특성을 "그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어떤 것(something it is like to be in that state)"[16]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상적 속성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전도 있으나,[17] 본고의 관심이 현상적 속성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견해를 수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동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제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필 지각 경험은, 예를 들어 빨간색의 시각 경험에 의존하면서 '전형적인' 빨간색의 시각 경험이 가지는 현상적 속성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는 시각 경험이다. 전형적인 빨간색의 시각 경험은 분명 전형적인 초록색의 시각 경험과는 다른 그것만의 고유한 현상적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빨간색의 시각 경험에 의존하지만 전형적인 빨간색의 시각 경험이 가지는 현상적 속성과는 다른 속성, 가령 '강렬함', 혹은 '따뜻함', 혹은 '생동감 있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또 다른 예로, 파스텔 색으로 칠해진 곡선의 꽃병을 볼 때, 우리는 파스텔 색과 곡선에 대한 시각 경험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종종 그 꽃병을 '조화롭다'거나 혹은 '섬세하다'고 경험하기도 한다. 이 때 '조화로움'의 경험은 '파스텔 색과 곡선의 시각 경험'에 의존하지만 후자의 시각 경험이 가지지 않는 어떤 새로운 현상적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지금 파스텔 색과 곡선이 항상 조화롭거나 혹은 섬세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파스텔 색과 곡선은 밋밋하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 필자는 단지 '어떤 꽃병의 파스텔 색과 곡선에 대한 시각 경험'이 있을 때, 그것에 의존하는 또 다른 지각 경험, 소위 '그 꽃병의 조화로움을 지각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부터 이러한 후자의 경험을 '미적 지각'이라 부를 것이다.

미적 지각에 대한 연구는 분석적 미학 내에서 활발하고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어떤 특성을 지녀야 미적 지각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

---

16)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 pp. 435-450.

17) Dretske, F. (1995), *Naturalizing the Mind*, Cambridge: MIT Press.
Lycan, W. (1996),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Cambridge: MIT Press.

은 이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하고 있다: 미적 지각은 미적 속성을 '직접 대면(acquaintance)'할 때 발생한다.[18] 어떤 꽃병의 조화로움을 보아야만, 어떤 노래의 구슬픔을 들어야만 미적 지각인 것이지, 그것들의 조화로움과 구슬픔을 '이해'하거나 '추론'한다면 미적 지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대면의 원칙' 그리고 위의 문단에서 제시된 미적 지각의 특성을 포섭하여, 필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미적 지각이라 간주할 것이다: 어떤 꽃병이 조화롭다는 것을 추론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직접 대면하여 지각하는 경험으로, 이때 그 경험이 그것과는 다른 지각 경험, 예를 들어 그 꽃병의 파스텔 색이나 곡선에 대한 시각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

어떤 지각이 미적 지각이 되기 위해 그 현상적 특성이 반드시 언어로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필자가 미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심적 상태를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추론이나 이해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가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다른 지각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가 여부이지, 지각자가 미적 지각의 현상적 특성을 정확히 언어로 포착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 앞의 유리잔의 투명도나 색, 두께 등에 대한 시각 경험은 그것만의 고유한 현상적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유리잔의 또 다른 속성을 지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추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본 것이라면, 내가 본 것이 '섬세함'인지 '우아함'인지 '균형 잡힘'인지 정확히 언어화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의 경험은 미적 지각이다. 물론 필자가 개념이나 언어적 내용의 연관 없이도 '섬세함'이나 '균형 잡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단지 지각자가 본 것을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경험된 속성이 지각자가 알고 있는 개념들의 사이나 경계에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져서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미적 지각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

18) Sibley, F. (1965), "Aesthetic and Nonaesthetic", *Philosophical Review* 74, p. 137.

혹자는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의 심적 상태를 지각의 한 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필자에게 다음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A라는 음악을 들을 때 가지게 되는 '고음의 청각 경험'에 의존하는 'A를 긴장감 있다고 듣는 경험'은 '긴장감'이라는 현상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고음의 청각 경험'이 가지는 고유한 질적, 현상적 속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A를 긴장감 있게 듣는 경험'의 경우, 우리는 단지 A라는 음악을 향해 긴장감 있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태도'로 반응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긴장감'이 그 경험의 질적, 현상적 속성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보고 그것이 묘사한 주제가 아슬아슬하다고 이해하여 그것을 향해 긴장된 정서적 태도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 논의하는 미적 지각은 그러한 성격의 경험이 아니다. 필자가 말하는 미적 지각은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가 아닌, 그림에서 지각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선, 색, 형태 등의 시각 경험을 통해 그것을 긴장감 있다고 경험하는 것이다. 빨간색의 경험이 노란색의 경험과는 다른 고유한 질적 특성을 지니는 것처럼, 필자는 이 그림의 선, 색, 형태 등이 '긴장감' 있다고 경험하는 것은, 이 그림의 선, 색, 형태 등이 '안정감' 있다고 경험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내용이나 주제가 있는 회화의 예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추상화를 생각해보자. 검은 직선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사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몬드리안의 추상화들을 균형 잡혀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바로 필자가 말하는 미적 지각이다. 토마토를 빨간색인 것으로 경험할 때 느껴지는 그 경험의 고유한 현상적 속성이 분명 존재하며, 그것은 나의 정서적 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몬드리안의 그림을 균형 잡혔다고 지각할 때 느껴지는 그 경험의 고유한 현상적 속성이 분명 존재하며, 그것은 나의 정서적 태도와 구분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얼마든지 몬드리안의 그림을 향해 균형 잡힌 정서적 태도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 의미하는 미적 지각은 그 그림에서 지각 가능한 속성들(선, 색, 형태 등)의 직접 대면적 경험에 의존해서 그것들이

아닌 또 다른 지각 가능한 속성(균형 잡힘)을 직접 대면의 방식으로 보는 경험이다.[19)]

이러한 특징의 미적 지각은 그것이 다른 지각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버지와 마르가 외재론적 지각 이론을 전개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지각 일반'과는 다른 유형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미적 지각은 희귀한 경험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술작품이나 일상적 사물을 마주하면서 매우 빈번하게 미적 지각을 경험할 것이다. 필자는 미적 지각이 극히 일상적이고 빈번한 것이며, 따라서 내재론이나 외재론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배제되어왔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에 대해 지금 필자가 미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심적 상태의 유형은 이미 명제태도라는 심적 상태로 충분히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정치상황에는 긴장감이 있다'는 믿음은, 특정한 색이나 선, 형태 등에서 긴장감을 지각하는 심적 상태와는 엄연히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의 정치상황에는 긴장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심적 상태는 그것에 고유한 현상적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은 다른 지각가능한 속성들의 직접 대면적 경험에 의존해야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긴장감'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들에서 명제태도와 미적 지각은 엄연히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내재론자와 외재론자 모두 미적 지각을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었다. 아마도 미적 지각이 지각 일반 혹은 명제태도와 구분된다는 점을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

이제 필자는 3절에서 살펴본 가장 선철학적인 네 번째 직관은 오직 내재론적 지각 이론에만 호의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버지는 네 번째 직관은

---

19) 이상의 논의에서 짐작 가능하듯이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미적 지각'의 개념에 따르면, 그림에서 '균형 잡힘'을 느꼈다고 모두 미적 지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이 그려내고 있는 세계관이 균형 잡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미적 지각이 아니다 (아마도 그것을 '예술적 지각'이라 부를 수는 있을 것이다).

외재론에도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므로 내재론이 네 번째 직관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내재론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네 번째 직관을 오직 내재론에 호의적인 것으로 만드는 지각 유형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것은 분명 버지의 논증을 약화시킬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지각 유형 중 하나가 위에서 소개된 '미적 지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버지에 따르면 문제의 지각 관련 직관, 즉 '지각자가 구분하지 못하는 진실한 지각, 환영, 착시들의 표상적 내용은 동일하다'는 직관은, '지각의 내용은 지각자의 환경 요소를 지시함으로써 적절히 개별화 된다'는 외재론을 전혀 저해하지 않는다. 외재론적 지각 이론은 오아시스의 환영과 진실한 지각이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다는 사실을, 그 두 지각 모두 진실한 지각 상태에 있는 지각자와 정상적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 요소를 통해 개별화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의 경우 사실 외부 세계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진실한 지각을 하는 지각자와 정상적 관계를 맺은 환경에 대한 지시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진실한 지각과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 것으로 개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외재론적 지각 이론의 귀결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지구인이 가지는 오아시스에 대한 환영과 진실한 지각은 경험적, 질적 차원에서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지는데(데카르트의 직관), 그 둘의 내용은 모두 지구인과 정상적 관계를 맺은 환경 요소, 즉 H2O를 지시함으로써 개별화된다(외재론적 지각 이론). 반면, H2O 대신 XYZ가 존재하는 쌍둥이 지구에서 쌍둥이 지구인이 경험한 오아시스에 대한 환영과 진실한 지각은 둘 다 경험적, 질적 차원에서 쌍둥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지는데(데카르트의 직관), 그 둘의 내용은 모두 쌍둥이 지구인과 정상적 관계를 맺은 환경요소, 즉 XYZ를 지시함으로써 개별화된다(외재론적 지각 이론).

이 귀결을 살펴보면, 데카르트의 직관은 각각의 세계, 즉 지구와 쌍둥이 지구라는 '각각의 세계 내'에서 지각을 개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외재론과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

험들과 쌍둥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험들 각각의 경우는 외재론과 양립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 둘 다에게 질적, 경험적으로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험들은 어떠할까? 데카르트의 직관은 이 경우에도 그들의 경험들은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다고 할 것이며, 이제 이것은 명백히 외재론과 양립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외재론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관에 의해 지지되는가 여부가 한 이론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재론은 그 경험들이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한 세계에서는 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두 복제체의 오아시스에 대한 지각을 동일한 내용으로 포착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여러 난점들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쌍둥이 지구인의 지각을 물에 대한 지각으로 포착한다면 그는 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지각을 가지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다. 정리하자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험들, 그리고 쌍둥이 지구인에게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험들 각각의 경우를 따로 다룰 때 데카르트의 직관은 외재론과 양립가능하지만,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 그 둘에게 모두 구분불가능한 지각 경험들을 다룰 때 데카르트의 직관은 외재론과 부딪친다. 그러나 필자가 방금 지적하였듯이 외재론이 직관과 부딪힌다는 사실은 외재론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외재론자들은 두 복제체들의 심리와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둘의 오아시스 경험을 각각 H2O-지각과 XYZ-지각으로 상이하게 개별화해야 한다고 설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4.1에서 소개된 '미적 지각'의 경우에는 어떤지 살펴보자. 미적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일반의 경우에서처럼 데카르트의 직관이 외재론과 양립가능할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직관을 거스르는 경우, 외재론이 위 단락에서 사용한 전략(즉 직관적으로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지구인의 지각은 H2O-지각으로 쌍둥이 지구인의 지각은 XYZ-지각으로 개별화되어야만 그들의 심리와 행동이 제대로 설명된다고 주장하는 전략)도 미적 지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재론을 옹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모든 본래적, 내부적 속성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각각 지구와 쌍둥이 지구에 살고 있다. 이 둘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태어나 동일한 물리적, 신경생리학적 역사를 겪어왔으며, 더 나아가 동일한 문화권에서 자라오면서 그들의 현상적 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를 공유하는 복제체이다.[20]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지구에는 그림자가 있지만, 쌍둥이 지구에는 지구에서 그림자가 위치한 자리마다 그림자 대신 균열이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균열이 너무나 자잘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상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림자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한 마디로 하면 지구인은 그림자가 있는 세계에, 그리고 쌍둥이 지구인은 균열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둘의 시력으로는 그림자인지 균열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보다 그럴듯하게 가정하기 위해서 쌍둥이 지구의 광학법칙이 지구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가정을 추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 복제체들이 지금 노란색 커튼으로 둘러진 방에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런데 지구인이 들어간 방의 커튼은 주름 잡힌 곳마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반면, 쌍둥이 지구인이 들어간 방의 커튼에는 주름은 없지만 작은 균열들이 나있어서 마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인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 두 개인은 그들이 바라보는 커튼의 노란색이 그림자 혹은 균열의 어두운 색과 이루는 색대비를 강렬하다(intense)고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우리는 이 둘의 소위 '강렬함을 경험하는 미적 지각'이 동일하다고 개별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이하다고 개별화해야 하는가? 우리의 직관은 어디로 향하는가?

데카르트의 지각 관련 직관은 위의 사고실험의 경우 '두 복제체가 느끼는 강렬함은 질적 측면에서 구분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미적

20) 여기서 두 복제체가 환경적 차이(그림자와 균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현상적 역사를 겪는 복제체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둘의 현상적 장에서 발생한 '비지향적으로(non-intentionally) 기술가능한 사건들의 역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지, 동일한 '내용으로 개별화된 현상적 상태들'의 역사를 겪어온 복제체로 이 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자는 이 사고실험의 조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이미 내재론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가정은 필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심성내용에 대한 사고실험을 할 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이다.

지각은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닌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보다 자세하게 데카르트의 직관은 다음과 같이 작동할 것이다. 그 둘이 물리적 복제체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장에 펼쳐진 사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그들은 분명 동일한 시각, 청각, 촉각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나 취향마저 동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커튼을 보았을 때 노란색과 어두운 색이 만들어 낸 색 대비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색 대비'가 질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된다면, 이제 그 색 대비로 인한 '강렬함'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것이다(예를 들어 강렬함의 세기라든가 하는 것이 동일할 것이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직관은 그들이 지금 노란색과 '그림자'의 대비, 혹은 노란색과 '균열'의 대비에서 강렬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노란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에서 강렬함을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직관은 커튼의 색 대비에서 느낀 강렬함은 그 때의 어두운 색이 그림자의 것인지 균열의 것인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을 따라가면 그 때 그들이 느낀 '강렬함의 지각'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해진다. 그들이 느낀 강렬함이 어떤 것인지 적절히 특징화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이 그림자로부터 나온 것인지 균열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기술하는 것은 과연 유의미한가? 데카르트의 직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답하게 한다. 그들이 느낀 강렬함이 노란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와 관련 있다는 것만 기술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미적 지각에 관한 데카르트적 직관이다.

물론 커튼의 색 대비를 강렬하다고 지각할지 밋밋하다고 지각할지는 그들이 형성한 미적 감수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그 둘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므로, 둘 중 하나가 커튼의 색 대비를 강렬하다고 지각한다면 다른 하나도 강렬하다고 지각할 것이며, 둘 중 하나가 밋밋하다고 지각하면 다른 하나도 밋밋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즉 데카르트의 직관은, 지구인이 커튼의 색 대비를 강렬하다고 지각하든지 밋밋하다고 지각하든지 간에, 지구인에게 그 색 대비가 경험되는 바와 쌍둥이 지구인에게 그것이 경험되는 바가 동일할 것이고, 그러

므로 그들 미적 지각의 표상적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필자는 데카르트의 네 번째 직관으로 인해(이 직관은 데카르트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이 직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 그의 방법적 회의론에서 사용했다) 우리는 두 복제체의 미적 지각의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지, 현상적으로 동일하면 표상적 내용 면에서도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미적 지각에 대한 위의 데카르트적 직관은 오직 내재론 지각 이론에만 호의적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시 3절 버지의 논의로 돌아가 보면, '지각 일반'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직관은 외재론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할 수 있었다. 나의 오아시스 관련 환영과 진실한 지각은 모두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직관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외재론자는 그 두 지각의 내용은 나와 정상적으로 인과 관계를 맺은 환경에 대한 지시로 포착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각 일반'이 아닌 '미적 지각'의 경우, 문제의 직관은 외재론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 미적 지각에 대해 데카르트의 직관은 '커튼의 색 대비에서 느낀 강렬함이 그 둘에게 구분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 표상적 내용도 동일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직관은 이제 '미적 지각의 표상적 내용은 지각자의 환경적 특성(그림자 세계에 살고 있느냐 균열 세계에 살고 있느냐)을 고려해야만 적절하게 포착된다'라는 외재론적 지각 이론과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도 그들이 그림자 세계에 사느냐 아니면 균열 세계에 사느냐에 의해 미적 지각의 표상적 내용이 개별화된다는 외재론을 따르면, 그 둘의 경험이 질적으로 구분불가능할 때에도 하나는 소위 '그림자-강렬함'으로 다른 하나는 '균열-강렬함'으로 개별화된다는 사실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데카르트의 직관을 거스른다. 이렇게 데카르트의 직관은 미적 지각에 대한 외재론적 견해와는 양립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내재론적 견해에는 매우 호의적이다. 미적 지각에 대한 내재론적 견해는 '두 복제체의 미적 지각의 내용은 그들이 그림자 세계에 사느냐 아니면 균열 세계에 사느냐의 문제에 관련되지 않고서도 적절

히 포착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데카르트의 '지각자에게 구분불가능한 경험들의 표상적 내용은 동일하다'는 직관은 내재론적 견해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직관적 힘을 더해준다.

잠시 여기서 다음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데카르트의 지각 관련 직관이 미적 지각에 대한 외재론과 양립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재론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했던 전략(즉 '지구인과 쌍둥이 지구인의 미적 지각의 내용을 다르게 개별화해야만 그들의 심리와 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지각 일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외재론은 쌍둥이 지구인의 균열 관련 지각을 그림자 지각으로 포착하면 쌍둥이 지구인은 자기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지각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재론은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지각을 개별화하지 않으면, 지각이 우리의 다른 심적 상태들에 전달하는 정보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적 지각의 경우는 어떠할까? 외재론은 지각 일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일관적으로, 지구인이 경험한 것은 그림자-강렬함이고 쌍둥이 지구인이 경험한 것은 균열-강렬함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러한 상이한 개별화가 과연 필요할까? 그들이 커튼의 노란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에서 강렬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림자-강렬함과 균열-강렬함으로 상이하게 개별화해야만 그 미적 지각이 다른 심적 상태들에 전달하는 정보를 제대로 포착하는 것일까? 내재론자는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며 필자도 그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필자는 그림자와 균열을 그들의 시각으로 구분해 낼 수 없을 때, 그들이 경험한 강렬함을 상이하게 포착하는 방식은 그것을 동일한 강렬함이라고 포착하는 방식에 비해 그들의 심리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특별한 설명적 장점을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옹호하기 위해 더 깊은 논증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나, 본고는 지금 '지각 관련 직관의 성격'을 이야기함으로써 외재론과 내재론을 고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명적 장점'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리하자면, 데카르트의 직관은 미적 지각에 대한 외재론과 양립불가능하다. 반면 그 직관은 미적 지각에 대한 내재론에 확실히 호의적이다.

물론 외재론자들은 외재론이 직관과 부딪히는 듯 보여도, 여전히 외재론적인 개별화는 여러 설명적 힘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 일반'의 경우에는 외재론의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미적 지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 전개된 필자의 주장은 3절에서 소개된 버지와 마르의 논의에 연관된 것이지, 현상적 속성이 표상적 내용으로 개별화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기존의 외재론 대 내재론의 논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절에서 버지는 '지각자가 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험들은 동일한 표상적 내용을 가진다'는 직관은 외재론과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절에서 필자는 '지각 일반'에 관해서는 버지에 동의하나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문제의 그 직관이 오직 내재론에만 호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선철학적 직관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러한 직관이 있음을 받아들인 후, 그 직관이 '미적 지각'과 관련해서는 오직 내재론에만 호의적임을 보이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를 통해 내재론이 자랑해 오던 직관적 호소력이 허상이라는 버지의 주장에 반례를 제공하였다. '미적 지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데카르트가 말하는 선철학적 직관이 가지는 자연스러움에 호소하여 옹호될 수 있는 견해는 오직 내재론뿐이다. 물론 여기서 직관의 자연스러움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내재론을 옹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에서 '직관적 자연스러움'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하는 사고실험이 외재론 대 내재론 논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버지와 같은 외재론자의 주요 전략이 내재론이 자랑해오던 직관적 자연스러움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필자는 이 절에서 적어도 '미적 지각'에 대한 내재론만은 직관에 의해 지지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Ⅴ. 나가며

다수의 내재론자들이 심리적 내재론을 옹호하기 위해 그것의 직관적 자연스러움을 언급한다. 특히 내재론적 지각 이론은 가장 선철학적인 직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곤 하는데, 이를 들어 내재론자들은 심적 상태의 유형 중 일부는 외재론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각과 관련해서는 내재론이 가장 직관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노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버지는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직관은 외재론적 지각 이론과도 얼마든지 양립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직관 그 자체가 내재론을 지지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그렇다면 버지의 주장대로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자랑하던 직관적 호소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지각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외재론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필자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재론 대 외재론 논쟁에서 간과되어온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지각 일반'에 대한 외재론이 데카르트의 직관과 양립가능하다는 버지의 논증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미적 지각'이라는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그 직관은 오직 내재론에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식의 직관은 미적 지각과 관련해 우리를 오직 내재론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내재론적 지각 이론이 직관으로부터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버지의 논증을 약화시키는 반례를 제공하였다. 이제 본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내재론자들은 적어도 '미적 지각'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재론이 직관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을 들어 외재론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4. 01. 24.
심사완료일: 2014. 04. 28.
게재확정일: 2014. 04. 29.

신현주
서울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Burge, T. (1979), “Individualism and the Mental”,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IV,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73-121.

_____. (1986a), “Cartesian Error and the Objectivity of Perception”, in J. McDowell and P. Pettit(eds.), *Subject, Thought, and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6b), “Individualism and Psychology”, *Philosophical Review* 95, pp. 6-45.

Chisholm, R. (1957), *Perceiving: A Philosophical Stud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Dennet, D. C. (1971), “Intentional Systems”, *Journal of Philosophy* 68, pp. 87-106.

Dretske, F. (1995), *Naturalizing the Mind*, Cambridge: MIT Press.

Fodor, J. A. (1980), “Methodological Solipsism Considered as a Research Strategy in Psycholog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pp. 63-73.

Kitcher, P. (1988), “Marr’s Computational Theory of Vision”, *Philosophy of Science* 55, pp. 1-24.

Lycan, W. (1996),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Cambridge: MIT Press.

Marr, D. (1982), *Vision*, San Francisco: Freeman.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 pp. 435-450.

Price, H. H. (1932), *Perception*, London: Methuen.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Philosophical Papers II: Mind, Languages,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ssell, B. (1912), *The Problem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ibley, F. (1965), "Aesthetic and Non-Aesthetic", *Philosophical Review* 74, pp. 135-159.

Stich, S. P. (1983), *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 The Case against Belief*, Cambridge: MIT Press.

ABSTRACT

Psychological Individualism and Aesthetic Perception

Shin, Hyun Joo

Individualists often point to the ‘intuitive power’ of psychological individualism. Particularly, the individualistic theory of perception is seen as based on the most pre-philosophical intuition, and this leads some individualists to argue that it is the individualistic picture of perception that provides the best account of perception, while admitting that the externalist picture may explain the other types of mental states. However, Burge points out that the intuition in question is also compatible with the externalist theory, and that the seeming intuitive power of the individualistic theory has no ground. Given this, should we conclude that individualism is inadequate in explaining perception?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so-called ‘aesthetic percep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debate between externalists and individualists concerning percep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of all, given that we experience aesthetic perception quite ordinarily and frequently, continuing the debate without discussing it does not make sense. Secondly, our examination on the nature of aesthetic perception can be crucial to the fate of the debate. It seems that our intuition about the nature of perception is compatible with externalism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perception in general’. However, concerning the matteof ‘aesthetic perception’, the intuition gives its support only to

individualism. In other words, aesthetic perception can be a crucial counter-example to Burge's claim that the seeming intuitive power of individualism has no ground.

Keywords: Psychological Individualism(Internalism), Psychological Externalism, Cartesian Skepticism, Theory of Vision, Aesthetic Perception